

마음을 비운 아내 (상)

김형남 (천안시 신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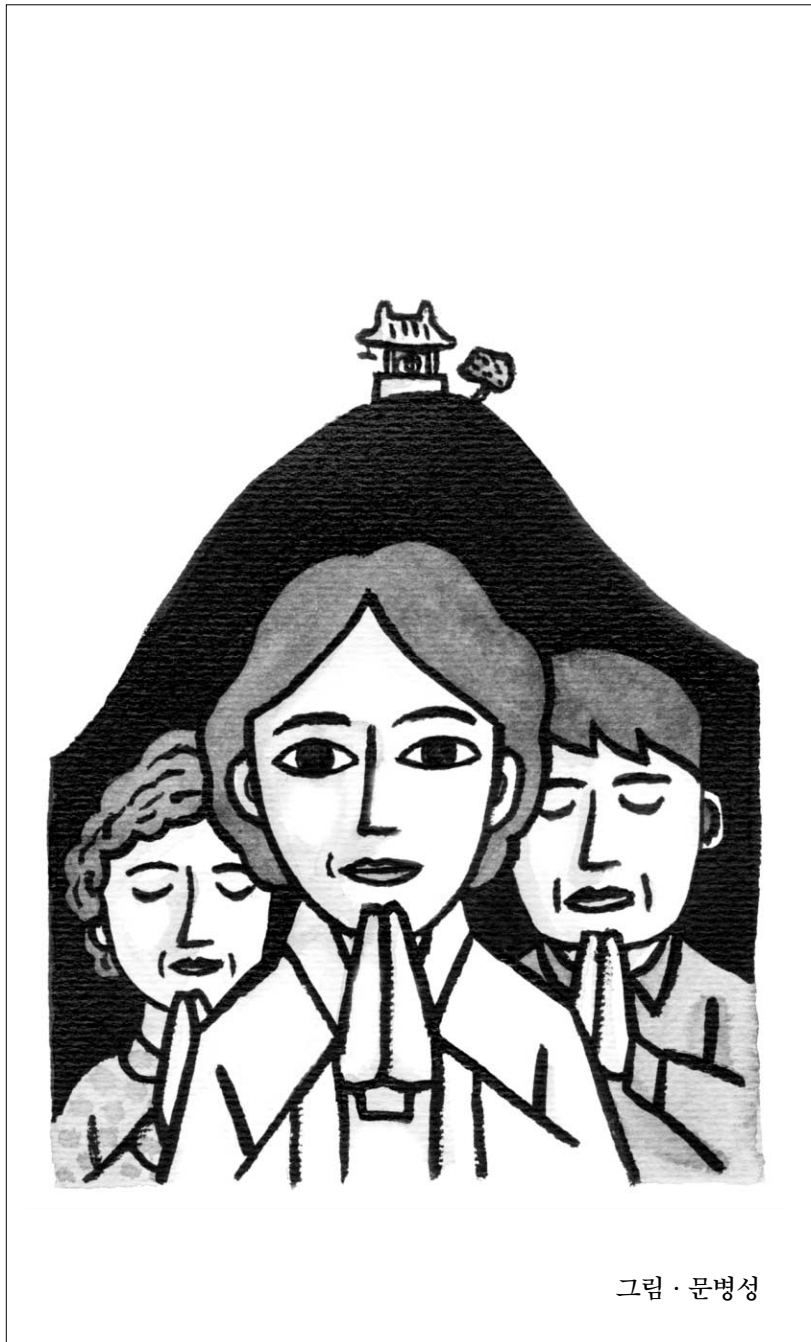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아내는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또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가 온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시아버지와 세 상 인연을 끊기가 어려웠던가 보다. 화장터에서도 애써 울음을 감췄던 아내였다. 하지만 정작 절에 아버지 유골을 모시고 재를 지내면서 나는 무너져 내렸다.

아내의 아원 모습이 안쓰러웠다. 시아버지에 대한 아내의 기억은 어떤 것일까. 집 안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닌 듯 했다.

아내의 시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평범했다.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고맙고, 때로는 안타까운 어떤 머느리든 시아버지에 게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기억 말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었음을 안 것은 아버지 49재를 지낸 그 날이었다. 아내가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12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아내의 통통한 편이었다. 그런 아내를 보며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꽤 만족해 하셨다. 늘 건강이 최고라고 하셨던 두 분이였다. 특히 아버지는 "우리 집 머느리 되려면 건강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곤 했다.

중학교 교사인 아내의 욕심이 많은 편이다. 뭐든지 1등을 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그런 성격 탓에 교사들 간의 경쟁에서도 늘 앞서 있었고, 학교도 아내를 꽤나 아꼈다. 아내가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교장 선생님께서 나서서 걱정을 해주곤 했다. "적당히 쉬면서 하라"는 주위 사람들의 충고를 듣는 횟수가 늘었지만 아내는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끝'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동분서주했다.

심지어는 방학 때도 하루도 쉬지 않고 재교육이다. 교양강좌다 하면서 몸을 그냥 두지 않았다.

아이들에 대한 욕심도 지나쳤다. 자식에 대한 욕심이 어느 부모든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라면 몰라도 아내는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붙잡고 공부부 시킬 정도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10년 동안 혹사시켰으니 온전할 리가 없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마르기 시작했고 멍달아 신경도 예민해졌다. 자연히 집안 식구들도 명

그렇게 한달쯤 흘렸을까, 아내가 갑자기 절에 가고 싶다고 했다. 정신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했던 아내가 갑자기 절에 가자고 한 것이다. 아내 집안이 불교였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내는 장모님을 따라 절에 몇 번 다닌 것 외에는 특별히 절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 그냥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아내는 처형에게도 같이 절에 가자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다. 처형과 아내와 함께 시내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광덕사에 갔다. 광덕사는 처형이 자주 다니는 사찰이다. 처형은 아내에게 종종 광덕사 얘기를 하

나와 처형은 몸이 무리가 간다며 아내를 만류했다. 하지만 아내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여기 오니까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자. 같이 하면 더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와 함께 절을 했다. 아내와 나는 그렇게 300배 정도를 했다. 아내의 거친 숨소리에 걱정은 됐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편안해 보였다.

그런데 절에 다녀온 뒤로 아내는 거짓말처럼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온종일 죽한 그릇 제대로 먹을 때까 할 정도로 입맛을 잃었던 아내가 이것저것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다. 참으로 금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마저도 먹지 못해 병을 다스리지 못했던 아내였다.

"갑자기 얼마 생각이 났어. 나 대학입시 때 엄마가 절에 가서 기도 많이 하셨는데, 나는 엄마한테 그럴 필요 없다고 했었던 거든. 그런데도 엄마는 밤새 기도를 하시고 집에 오신 적도 있어. 힘드신 텐데 그만 두시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때 엄마는 대답 대신 나한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편안하게 공부하라고 하셨어."

아내는 장모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렇지 않아도 장모님에게 정이 많은 아내였다. 아내의 마음 한 구석엔 늘 장모님의 고생이 걸려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장모님 얘기를 하면 아내가 갑자기 시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시아버지에게 그토록 공손했던 아내. 하지만 시아버지에 대한 아내의 속마음은 달랐었다. 아프기 전까지는. (계속)

직장인·머느리로서 일등감이었던 아내 결혼 10년이 지나며 건강 악화로 몸져누워 죽한 그릇 못 먹던 기력 절 다녀온 후 회복

달아 눈치를 살펴야 했다. 아내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몸이 편치 않으니 다른 사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아내는 몸져누워 버렸다. 신경성 위염과 식도염이 겹쳤고 신경도 쇠약해졌다는 병원의 처방을 받았다. 별다른 증상은 없기 때문에 며칠 쉼만 내어줄 것이라고 의사는 말했다. 하지만 의사의 말과는 달리 아내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집안일마저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없어지면서 처갓집 어른들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장모님은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해오셨지만 아내는 그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소위 옹하다는 한의원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안정과 휴식, 그리고 영양섭취가 필요하다는 말 외에는 특별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결국 11살 9살짜리 초등학생 두 딸 아이는 엄마 대신 살림을 해야 했고, 나 역시 집안일과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며 같이 가자고 권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는데 절에 갈 시간이 어딴어?" 하면서 뿌리치곤 했다.

법당에 들어선 아내는 처형을 따라 절을 하기 시작했다. 절하는 아내의 모습은 매우 험겨워 보였다. 삼배를 마친 아내는 법당에 앉아서 10여 분 동안 꿇어지듯 부처님을 응시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절을 하기 시작했다. 10배, 50배, 100배가 넘도록 아내는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작곡자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되어 보내드립니다. 귀중한 수행수기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수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탈종공고

- 사찰명 : 용화사
- 주 지 : 해은(송병연)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464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2006년 9월 20일

(사)대한불교삼학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법 명 : 명조(김성민)
- 승적번호 : 1103-20639

상기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0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급 냉동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i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농협 100023-56-156761(조형숙)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팽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t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ikutak.com